

간화선 · 위빠사나는 이렇게 ...

최근 불교계는 한국 선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간화선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대 과제에 직면해 있다.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간화선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일련의 작업과 논쟁들이 적잖이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웅 스님(미국 육조사 주지)은 최근 펴낸 <묻지 않는 질문>에서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법을 쉽고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올바른 수행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한다.

스님은 전 조계총림 방장 구산 스님의 제자이다. 스님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위치한 육조사와 돈오선원에서 20여년간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선불교를 가르치고 있다.

이 책은 스님이 그동안 서양인들에게 해온 법문과 시, 선사와의 법거랑 등을 한데 모은 것으로, 이를 통해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깨달음의 세계, 그 현대적 의미 등을 낱알이 이야기 한다.

이 책에서 스님이 말하는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차이점은 이렇다.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명상법은 팔, 다리 등 감각과 느낌을 통해 점진적으로 들어가 깨달음을 완성하



육조사에서 법문중인 현웅 스님.

는 것이라면 선불교의 간화선, 즉 화두법은 그런 무상한 것들을 놔두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다(空)’는 관점으로 들어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위빠사나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잎을 끊임없이 제거해 가는 방법이라면 화두공부는 나무의 뿌리, 즉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

‘묻지 않는 질문’

현웅 스님 지음
민족사 / 1만2천원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빠사나와 간화선의 차이점입니다.” 스님은 “서양인들이나 동양인들 모두 감각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쉽다고 느끼지요. 며칠만 해도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요즘 위빠사나가 대중들

등을 원초적으로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간화선은 그 어떤 집착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하면 그 때부터 괴로움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뿌리를 파헤친다는 측면에서 가장 탁월한 수행방법입니다. 반면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수행한다는 것이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근기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현재는 확실하게 지도하는 스승이 없습니다. 이것이 단점입니다. 따라서 혼자 수행하다가 어떤 특이한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정

현웅 스님, 자신의 경험 토대 수행법 설명 20여년간의 법문·시·법거랑 등 정리

로부터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평온에 불과합니다. 현실에 부딪치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부처님이 생존해 계실 때는 일일이 지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부처님 같은 스승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위빠사나의 장단점을 지적한다.

간화선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반면 간화선은 번뇌, 망상, 무상, 허무

말 올바른 깨달음인지도 모른 채,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이것이 간화선의 문제점입니다”라고 말한다.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법에 대한 언급 뿐 아니라, 이 책에서 스님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한 구체적인 실천 수행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수행의 길을 걸으려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100세 장수법’

토마스 펄스의 지음
우종민의 옮김
사이언스북스 / 1만원

긍정적인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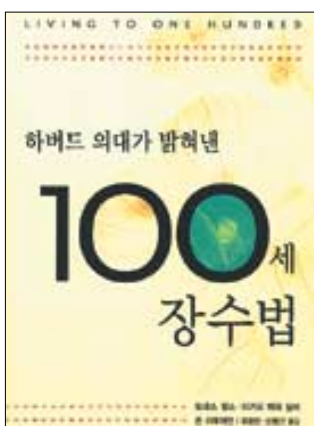
100세 장수비결

얼마전까지만 해도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은 해외토픽 뉴스에서나 접할 수 있었다. 그만큼 드물었던 100세 이상 노인들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어나는 인구 집단으로 부상했다. 현재 미국에 5만명이 넘는 100세이상 장수 노인이 살고 있으며, 일본에도 2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과연 어떤 사람이 100세까지 사는 걸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래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

미국 하버드 의대 펄스 박사팀은 <100세 장수법(Living to 100)>에서 장수비결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분석한다.

펄스 박사팀은 169명의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을 만나 신경학적 검사, 성격검사, 뇌의부검, 그밖에 장

수의 유전적 근거를 조사하기 위한 가계도 조사 등을 통해 장수 노인들의 유전적인 요인이나 가계도 등이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장수의 비결이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



▶치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친숙한 환경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 사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기억력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뇌 구조물인 해마를 위축시킨다. 나쁜 식습관이나 교육수준보다도 오히려

노년기의 삶은 풍성한 결실의 시기

나라는 것도 밝혀냈다. 펄스 박사팀은 장수하기 위한 비결을 이렇게 제시한다.

긍정적인 성격과 정신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생존 요소 중의 하나이다. ▶유머가 주는 활력이야말로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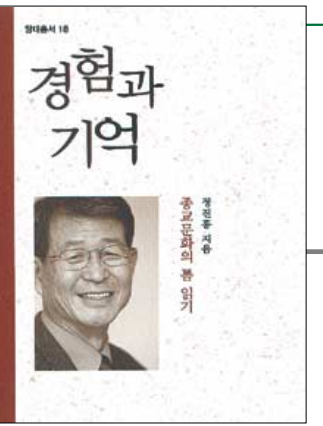
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이다. 유머는 감정의 부담을 줄이며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종교는 머지 않아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긍정적인 삶은 삶을 활력 있고 건강하게 만든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층에 사는 노인보다 2,3층에 사는 노인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혈액에 철분이 많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규칙적인 헌혈은 장수에 도움이 된다 등이다.

펄스 박사팀이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노년기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들이 직접 만난 노인들은 노년기의 삶이 황량한 불모지가 아니라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과수원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노령화 시대를 위해서는 건강과 장수에 대한 기준을 바꾸고 장수 노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은자 기자

‘경험과 기억’

정진홍 지음
당대 / 2만원



종교문화 다양한 시각서 천착

저자 정진홍 선생은 평생 종교학을 연구한 원로교수이다. 이 책은 그가 서울대 교수로서 정년을 맞이하여 펴낸 것이다. 저자의 표현대로 생업으로서의 종교학을 끝내고 ‘종교적인 것’의 현실과 직면하면서 펴낸 책이기에 종교학 전문서적은 아니다. 그렇다고 신앙독백은 더욱 아니다. 종교를,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반종교인이든 또는 어떤 종교인이든, 어떠한 종교이해를 가지고 있든, 교양인이거나 누구나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문화현상으로 인식한 저자가 종교학자로서 자신이 읽어 낸 종교문화학을 기술한 책이다. 그래서 <경험과 기억>이라는 이 책의 부제는 ‘종교문화의 탐 입기’이다.

저자는 ‘종교를 위한’ 물음은 있어도 ‘종교에 대한’ 물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해답을 찾는 종교학은 도로(徒勞)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종교학을 ‘학문일 수 없는 학문’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종교학은 불행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왜 이 두 물음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스스로 전공하는 학문을 불행한 학문이라

유·불·도 외래종교 분류 납득 어려워

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는 종교학자이기 이전에 크리스티교인이다. 저자는 크리스티교인으로서 크리스티교라는 종교의 울림의 세계 안에서 행복했다고 한다.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하지만 ‘성숙’은 불가피하게 더 넓고 복잡한 세계와의 만남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는 현실(眞)의 세계는 지극히 불안전한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같이 대립하는 신앙체계 속에서 앞의 길, 즉 종교학을 전공하게되면서 이와 같이 갈등하고 있는 저자는 분명 진실한 크리스티교인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신앙적 갈등의 긴장을 지닌 종교학자의 시각에서 본 종교문화학 답본이다.

저자는 크리스티교인이지만 크리스티교의 우월성을 강조하지 않고, 진실한 종교학자의 시각에서, 종교문화학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종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종교란 인간이 스스로 삶 속에서 지니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좇아 살면서 존재양태의 전이(轉移)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 경험은 이론, 실천, 공명체 등으로 구체화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신으로 취급되어온 무속은 고유종교로 인정된다. 무속이 타파해야 할 미신이 아니라 엄연한 종교현상으로, 그것도 고유종교로 취급받게 된 것은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 고유종교와 상대적으로 불교, 유교, 도교 등을 크리스티교와 함께 외래종교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다. 한국종교학계에서는 이러한 분류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필자는 이러한 분류에 동의할 수가 없다. 문화는 한 국가 단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문화권을 이룬다.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크리스티교라는 종교를 통해 동일 문화권을 형성했듯이, 동북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가 문화의 토대로 작용했다. 크리스티교의 발생지는 중동이지만 서양에서 크리스티교를 외래종교라고 할 수 없듯이, 유불도 삼교를 동북아 여러 나라에서는 외래종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유불도 삼교를 외래종교나 사상으로 취급한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고유한 전통이 없는 외래문화 일색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유불도 삼교를 외래종교로 보는 저자는 크리스티교의 전래를 유불도 삼교의 전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의 이유를 크리스티교가 전통적인 고유한 종교의 두 흐름, 즉 ‘하늘과 사람’과 ‘힘과 사람’이라는 두 흐름 가운데 ‘하늘과 사람’ 구조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의 결론은 크리스티교가 우리나라에서 겪은 갈등이 불교적 경험과 유교적 경험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고유한 종교들의 물음과 해답의 구조는 크리스티교의 종교로서의 구조를 수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크리스티교의 구조가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의식의 구조와 일치한다는 생각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수 천년의 역사 속에서 작용한 종교사상을 외래종교로 분류하고, 한국에서의 종교적 갈등을 외래사상간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정당하지 않다. 몸매 뻗어 사교에서 쉽게 벗어나는 어려운 법이다. 크리스티교인으로서의 종교학자가 종교문화학을 읽어 가는 사유의 틀에는 분명 크리스티교인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불교를 전공하고 있는 필자의 눈에는 그 한계가 더욱 커 보인다. ■이종표 교수(전남대 철학과

<경험과 기억>은 정진홍 前 서울대 교수가 종교라는 현상에 대한 전통적 이해와 문화라는 현상에 대한 기존의 답론 틀을 비집고 들어가 우리 삶의 현실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종교문화에 대한 물음들을 살핀 것이다.

사보는 사찰의 얼굴입니다 설법연구원에 맡겨 주십시오

사찰에서 직접 사보를 만드는 데는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기획, 원고청탁, 편집과 교정, 인쇄, 제본 등 손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최소한 한 사람 인건비에도 원고료, 인쇄·제작비 등을 따지자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직접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반의 반만 투자하십시오. 설법연구원이 멋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설법연구원 · 도서출판 솔바람 전화 (02)720-0824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403호

[뜻으로 읽는]

金剛經

‘금강반야’의 지혜를 한눈에 꿰뚫을 수 있는 믿음이 담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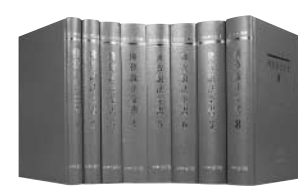


역저지 승전 우(한정신)국판 양장본 분량 264쪽 | 값 12000원

“혹 문장 가운데 뜻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바로 해석에 대한 의심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일념으로 깊이 ‘금강반야’를 읽는 마음만을 간직하십시오. 그 동안 통하지 않았던 의미가 저절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역저지승전 우에서-

설법연구원이 권하는 포교자료집, 불교설법전서

행사·교리·불사·비유설화·시사 등의 주제별로 항목을 분류, 합본 제작하여 발간된 책. 『불교설법전서』는 스님과 법사님의 필독서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1권(600쪽) 2만 원 5권(720쪽) 4만 원
2권(666쪽) 4만 원 6권(816쪽) 5만 원
3권(612쪽) 4만 원 7권(894쪽) 5만 원
4권(736쪽) 4만 원 8권(730쪽) 5만 원

神妙章句大陀羅尼 講解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

우리말로 풀이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고 싶다면,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으신 관세음보살님이 고난에 찌든 우리를 결코 다가오시는 듯하다.
중앙승가대학 교수 본각 스님



저지승전 우(한정신)국판 양장본 분량 208쪽 | 값 10,000원